

시각장애인 문화증진에 힘쓰는 비영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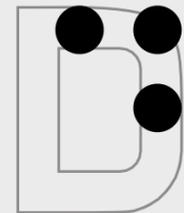
대구경북 점자 동아리_두다닷



동아리 개요



두다닷은
DO(하다) + 다(같이)+닷(Dot)
“다같이 하는 점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동등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활동 목적을 둔 대구경북 비영리단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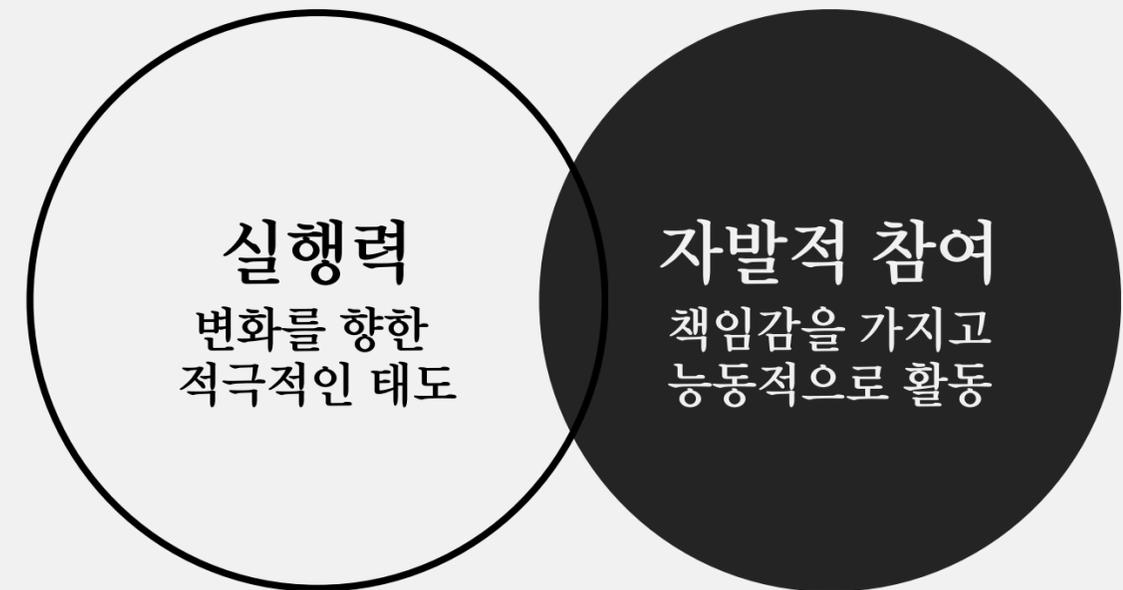
VISION

” 점자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원의 인식 및 환경 개선을 이끄는 대표 청년 조직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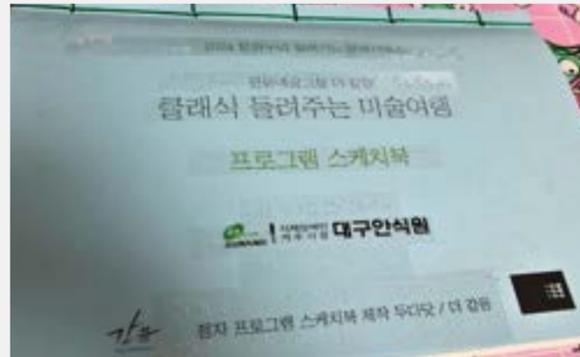
” 음성기술의 발달로 조명받지 못한 점자의 필요성과 시각장애인도 똑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알린다.

핵심 가치



두다맞은

점자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의 문화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시
각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에 한걸음씩
다가갈 것입니다.



암전 뮤지컬

암전과 안대를 이용해 시각적인 요소 없
이 즐길 수 있는 인식개선 목적의 뮤지컬

북콘서트

청년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장애 인식 개선
동화 제작 후 북콘서트 개최

점자 프로그램북 및 음성 해설 사이트 제작

양상블 더같음과 협약식을 맺고
시각장애인 문화 소비 수단 제작

점자 체험 부스 운영

점자 체험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필요성을 알리고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



D O ●
D A ●
D O T

두다닷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유

정보화 시대 속 정보에 민감한 우리는 기업과 언론, 국가에게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마땅히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은 똑같은 사회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앞을 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은 사회와 정보를, 세상과 즐거움을 접하기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마주보는 것은 힘들지 않도록, 배려나 동정이 아닌 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일상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D O ●
D A ●
D O T

두다닷이 “점자”를 선택한 이유

점자는 음성 변환 기술의 발달로 점차 외면받고 있지만,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과 특히, 법률 문서, 학술 논문 등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점자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점자는 단순히 문자의 개념을 넘어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고, 학습하며,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다르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개성과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DODADOT

다같이 하는 점자